

여론조사꽃 제2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2_04

ARS+CATI

제25차 ARS조사

제10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2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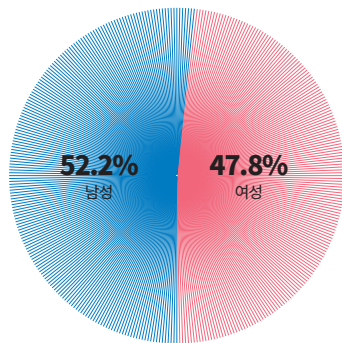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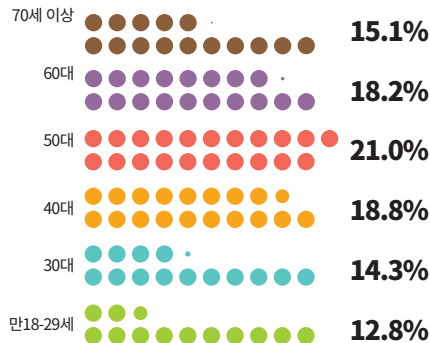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3.4% [총 통화시도 29,083명]
조사기간	2023년 2월 19일 ~ 2월 20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4	100.0%	1,004	100.0%	1.00
성별		남성	523	52.2	497	49.6	0.95
		여성	479	47.8	505	50.4	1.05
연령		만18~29세	128	12.8	166	16.6	1.30
		30대	143	14.3	151	15.1	1.06
		40대	188	18.8	183	18.3	0.97
		50대	210	21.0	195	19.5	0.93
		60대	182	18.2	169	16.9	0.93
		70세 이상	151	15.1	138	13.8	0.91
지역		서울	198	19.8	189	18.9	0.95
		인천·경기	318	31.7	319	31.8	1.00
		대전·세종·충청	103	10.3	105	10.5	1.02
		광주·전라	93	9.3	97	9.7	1.04
		대구·경북	102	10.2	98	9.8	0.96
		부산·울산·경남	142	14.2	150	15.0	1.06
		강원·제주	46	4.6	44	4.4	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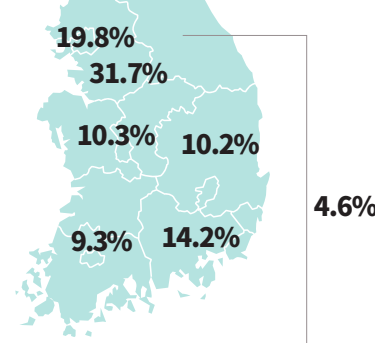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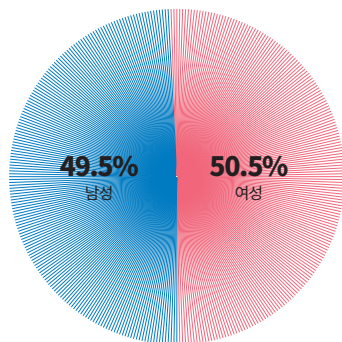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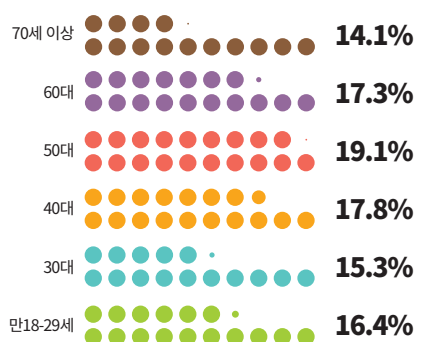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8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1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6.2% [총 통화시도 6,284명]
조사기간	2023년 2월 17일 ~ 2월 1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8	100.0%	1,018	100.0%	1.00
성별		남성	504	49.5	505	49.6	1.00
		여성	514	50.5	513	50.4	1.00
연령		만18~29세	167	16.4	170	16.7	1.02
		30대	156	15.3	151	14.8	0.97
		40대	181	17.8	187	18.4	1.03
		50대	194	19.1	198	19.4	1.02
		60대	176	17.3	171	16.8	0.97
		70세 이상	144	14.1	141	13.9	0.98
지역		서울	187	18.4	191	18.8	1.02
		인천·경기	326	32.0	322	31.6	0.99
		대전·세종·충청	110	10.8	108	10.6	0.98
		광주·전라	100	9.8	99	9.7	0.99
		대구·경북	102	10.0	100	9.8	0.98
		부산·울산·경남	151	14.8	153	15.0	1.01
		강원·제주	42	4.1	45	4.4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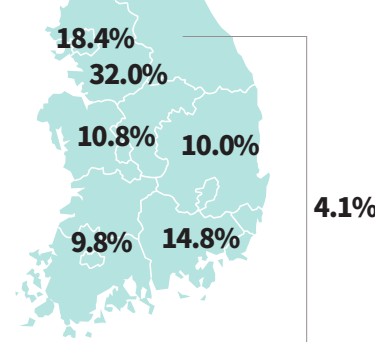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할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수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여론조사꽃 제2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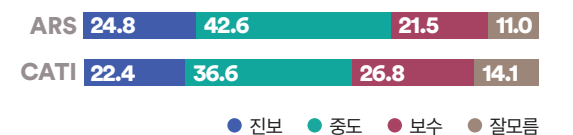
국정지표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정치·사회 현안	판결문에 언급된 대통령배우자와 장모의 이름
	검찰의 대통령 배우자 수사 전망
	김건희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비교·정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이름이
여러번 언급되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현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의 성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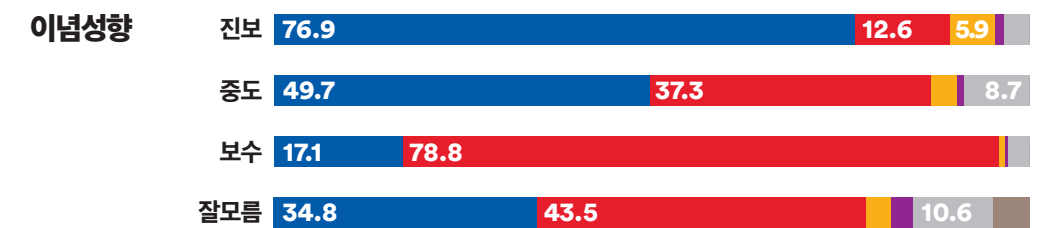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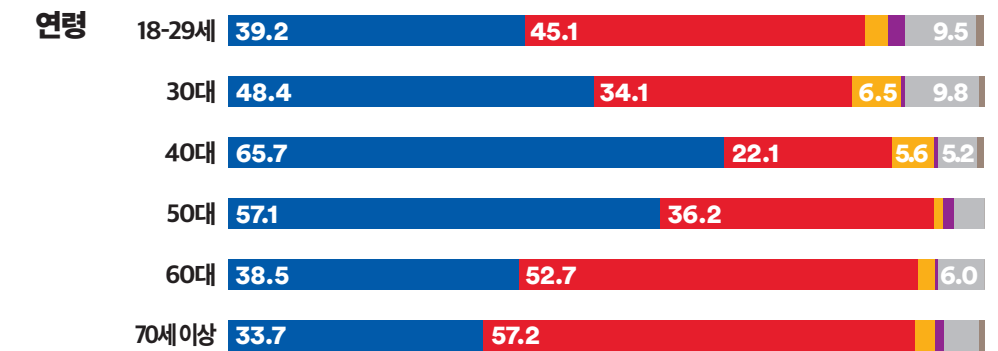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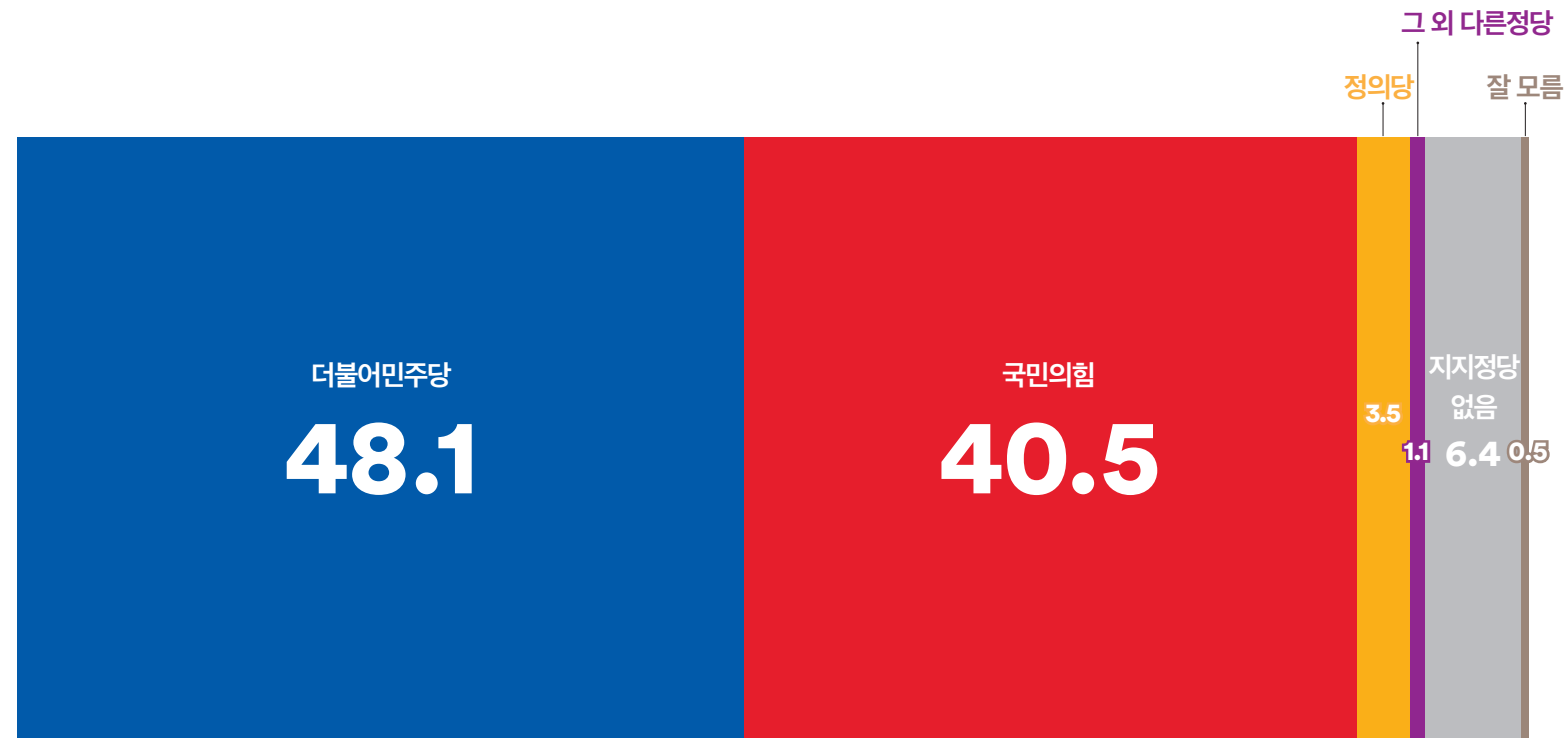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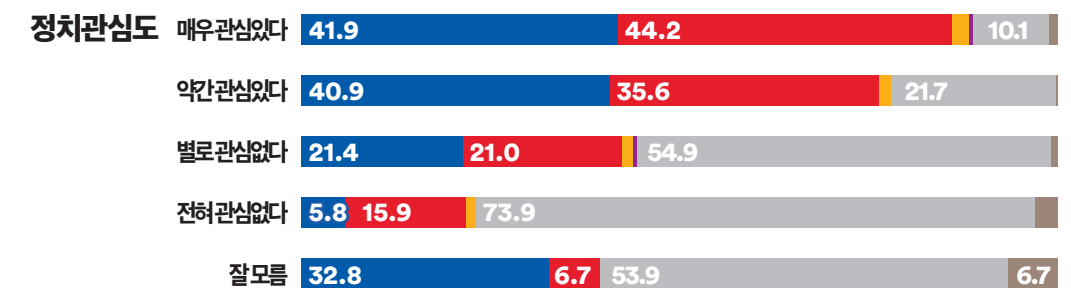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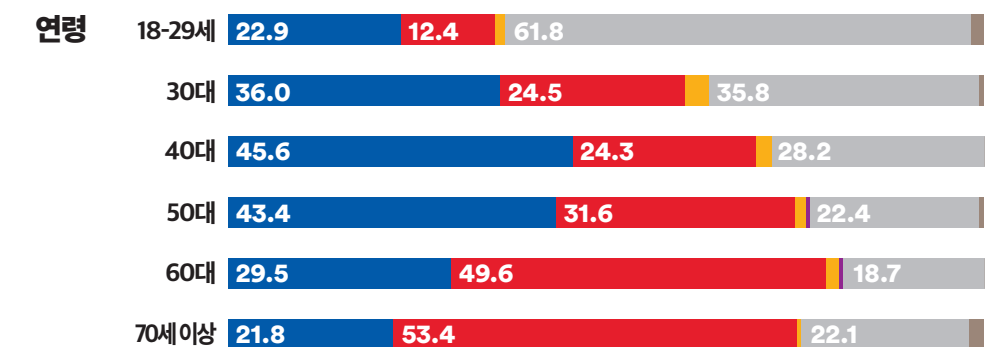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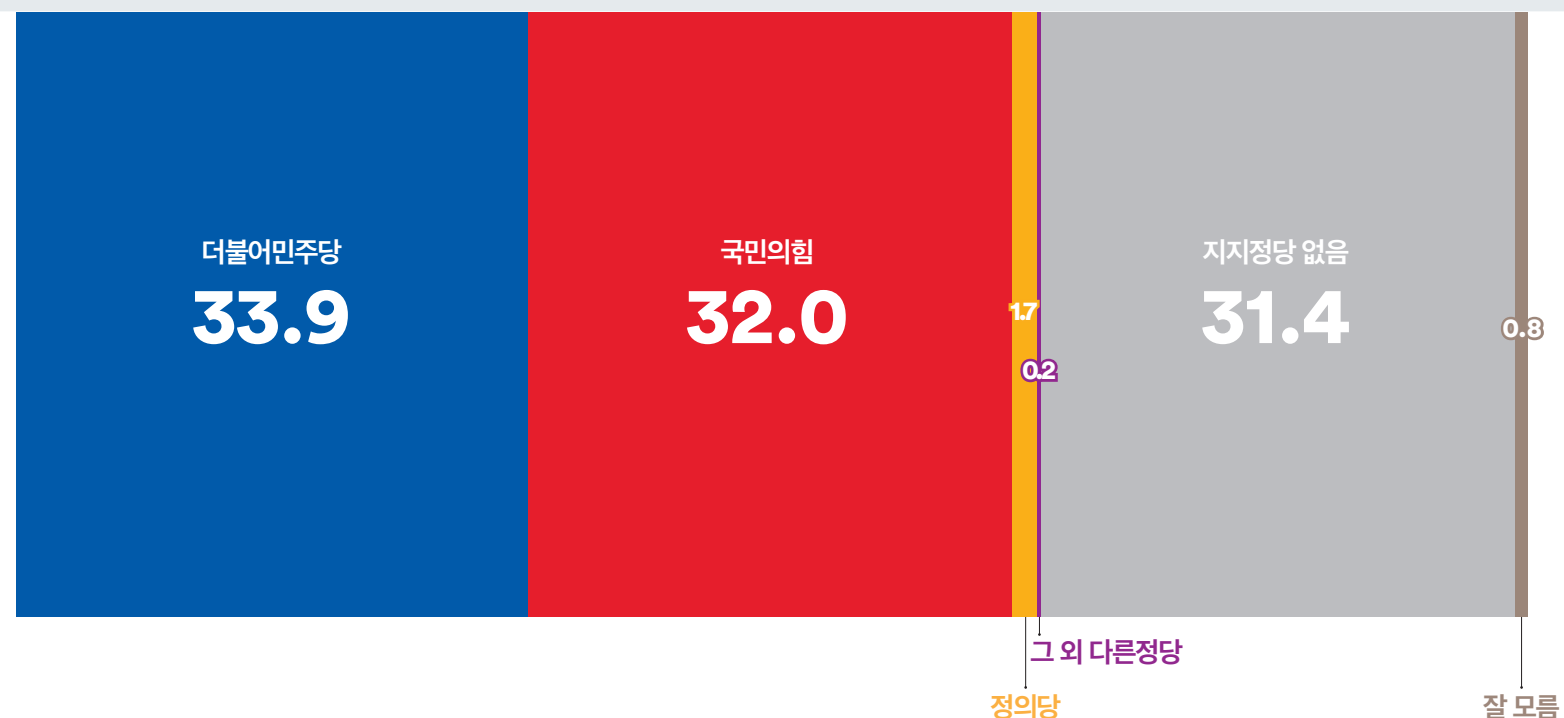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2%p, 국민의힘 3.0%p 상승

지난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8%p, 국민의힘 1.6%p 하락. 무당층은 지난 조사 대비 3.4%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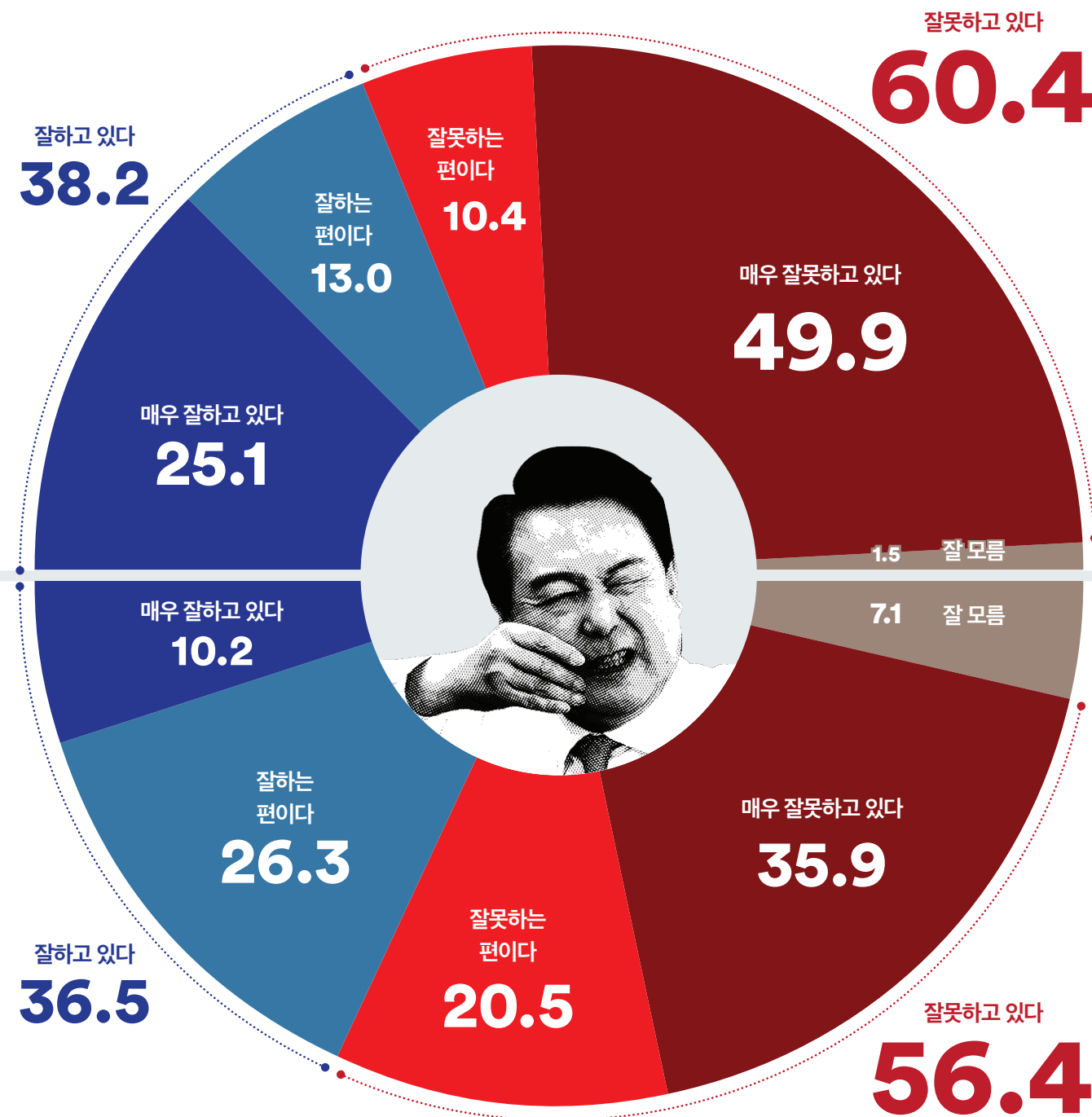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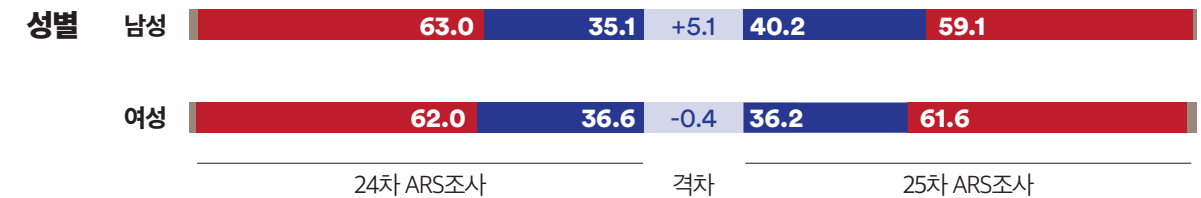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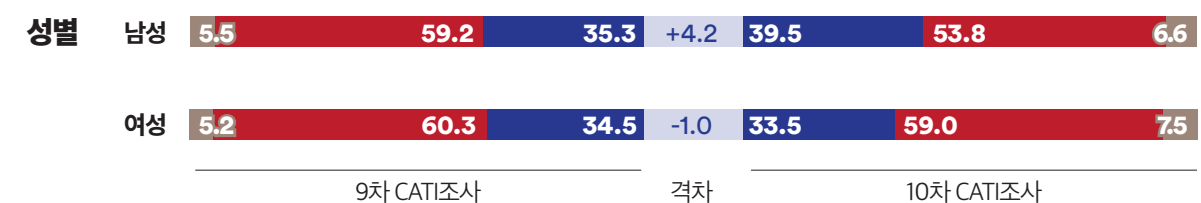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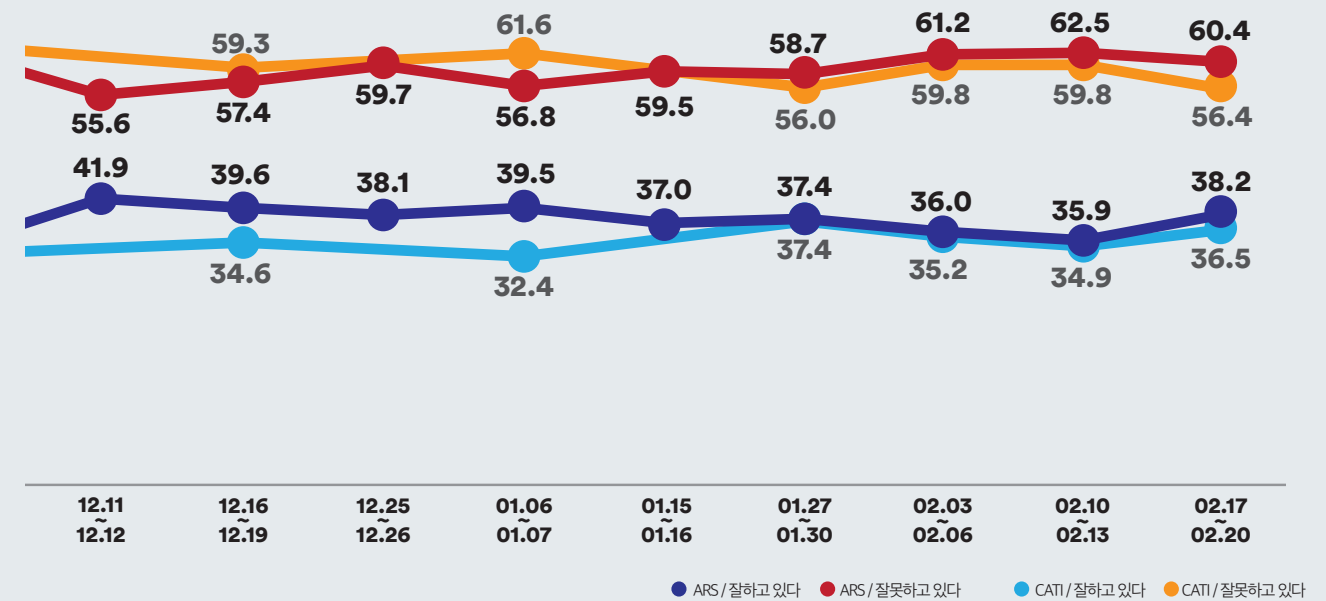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2.3%p증가, 부정평가 2.1%p 감소.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 앞섬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1.6%p증가, 부정평가 3.4%p 감소. 무당층·중도층은 10명중 6명이 부정평가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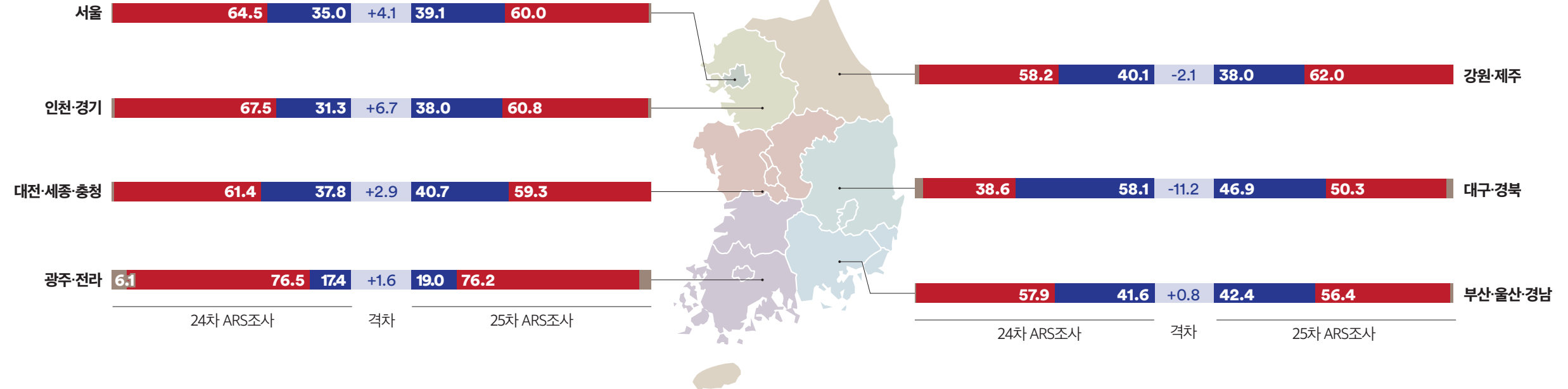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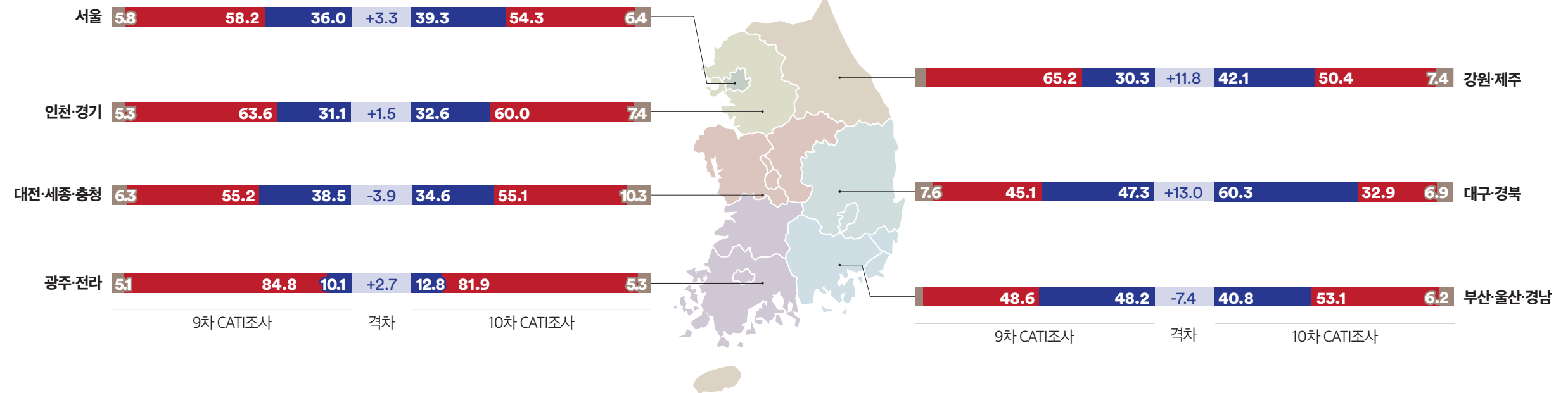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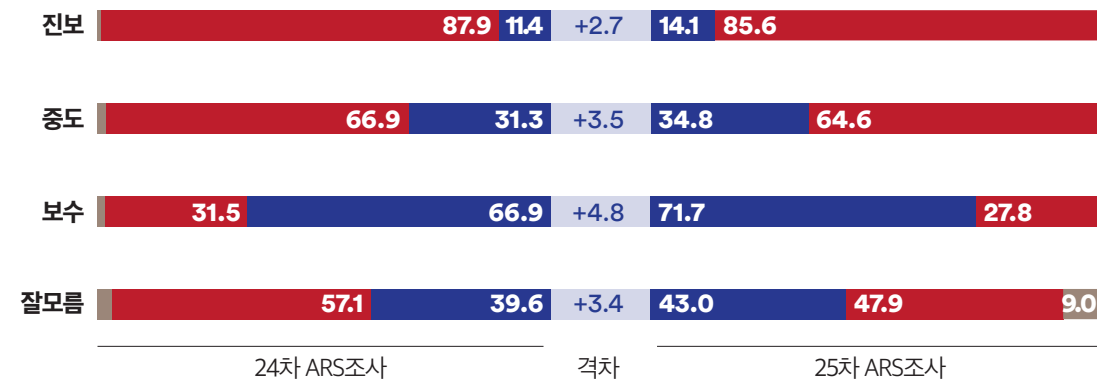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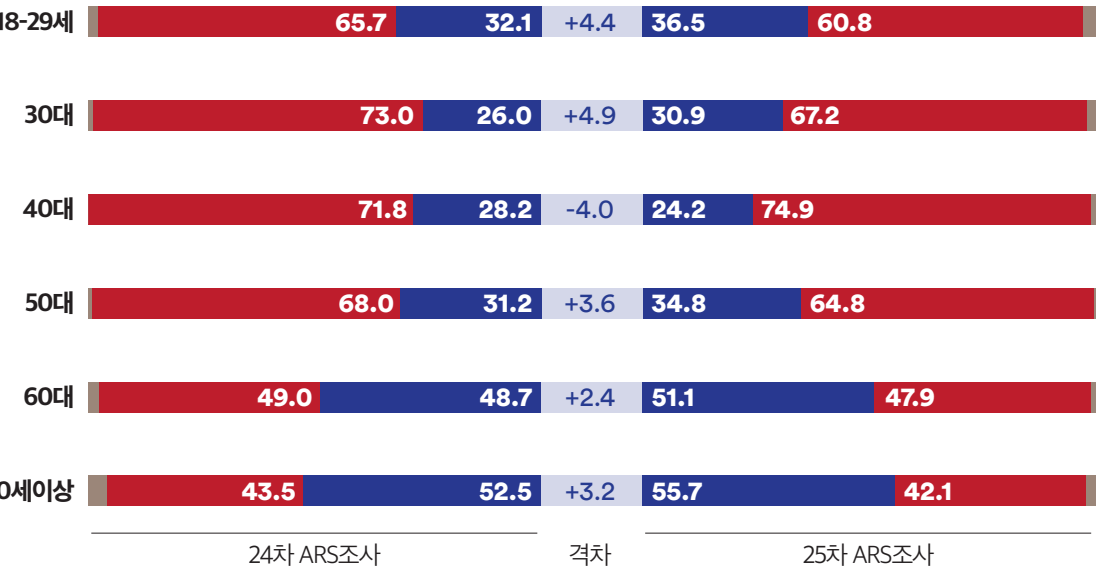
Q.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RI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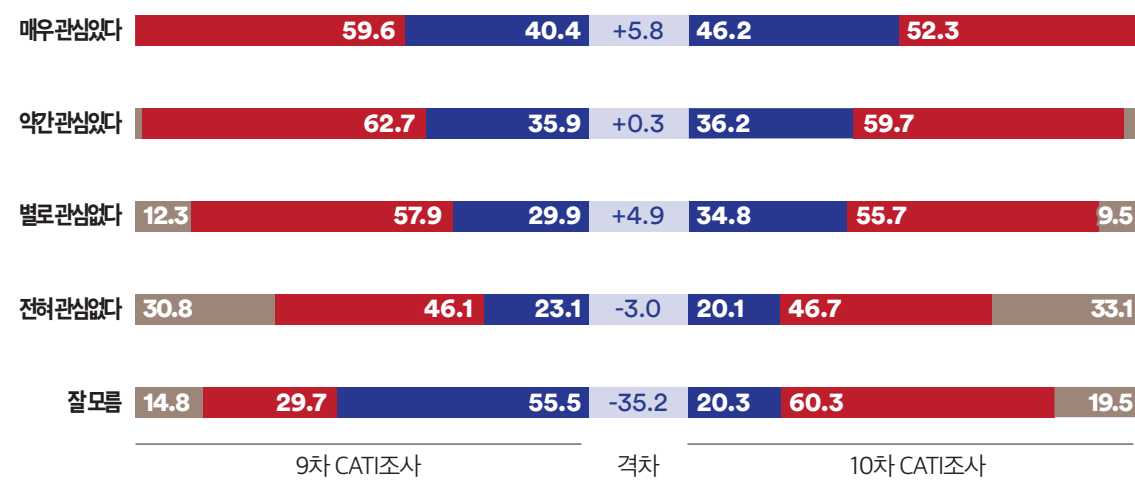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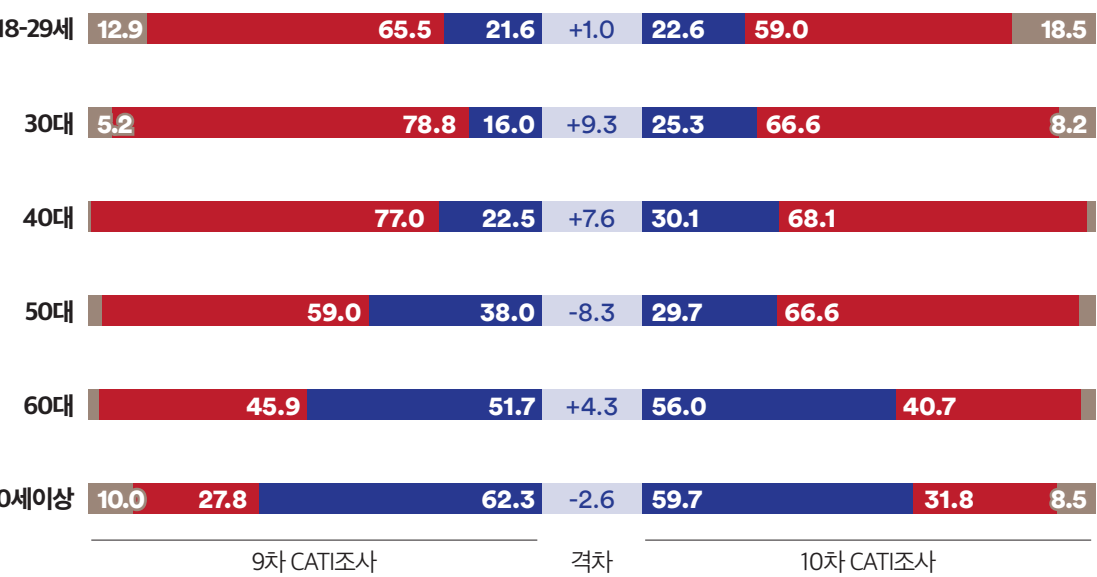


CATI

정치
관심도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판결문에 언급된 대통령 배우자와 장모의 이름

Q. 도이치모터스1심 판결문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좌주인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로 피고인 권오수의 지인이다. 위 주문들은 피고인들이 차례대로 의사 연락이 이뤄진 결과 제출된 주문이라고 인정된다. 거래 일수나 횟수가 많지 않으나 당해 거래들에서 해당 계좌는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 중]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58.6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30.6

잘 모름

10.8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53.8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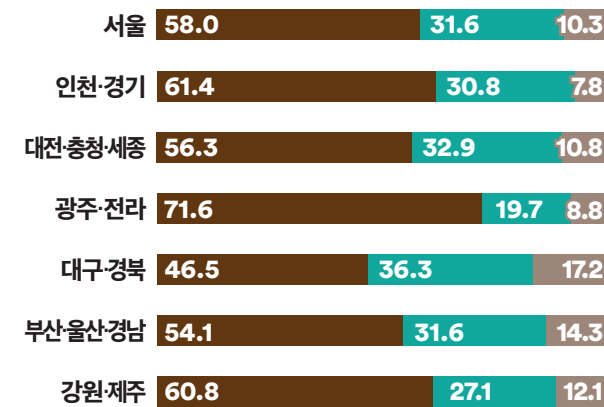
25.8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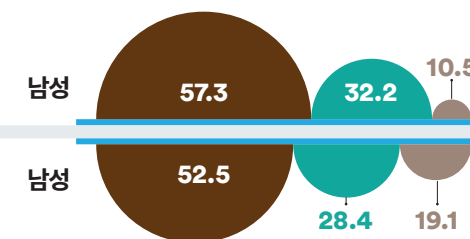
20.5

두 조사 모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70세 이상 응답자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과 모든 성별에서 ‘가담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더 많음
ARS | ‘가담했다고 생각한다’란 응답은 무당층에서 75.6%, 중도층에서는 61.1%
CATI | ‘가담했다고 생각한다’란 응답은 무당층에서 48.6%(잘모름 37.1%), 중도층에서는 63.2%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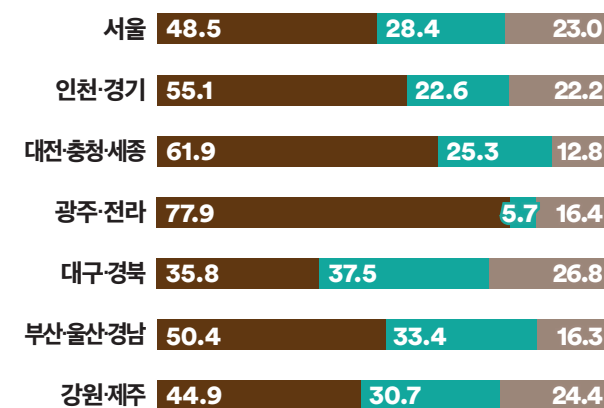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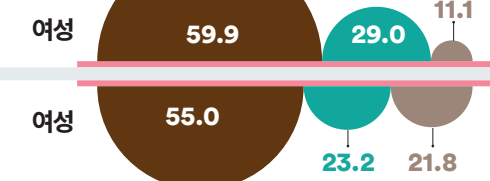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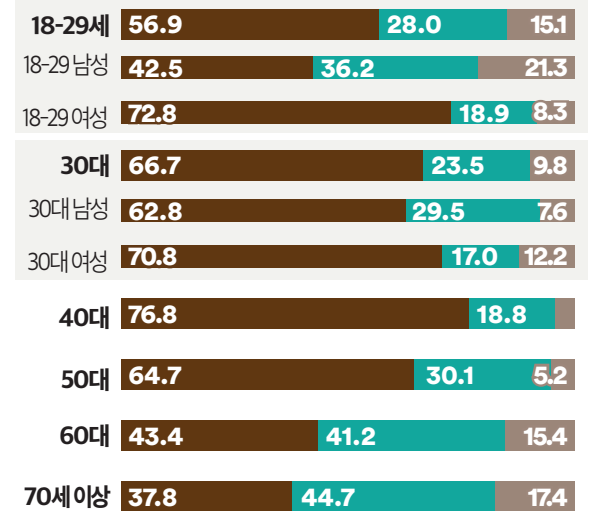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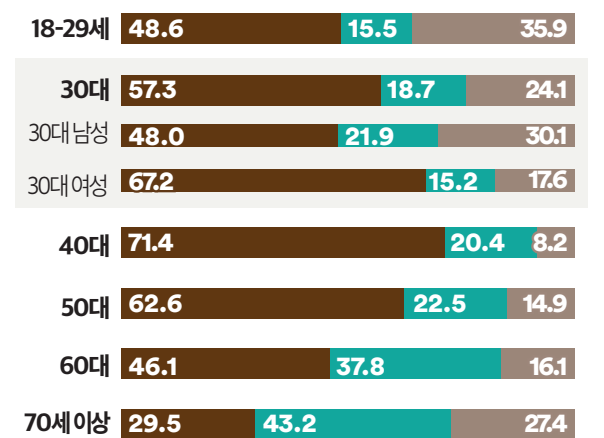
권역



연령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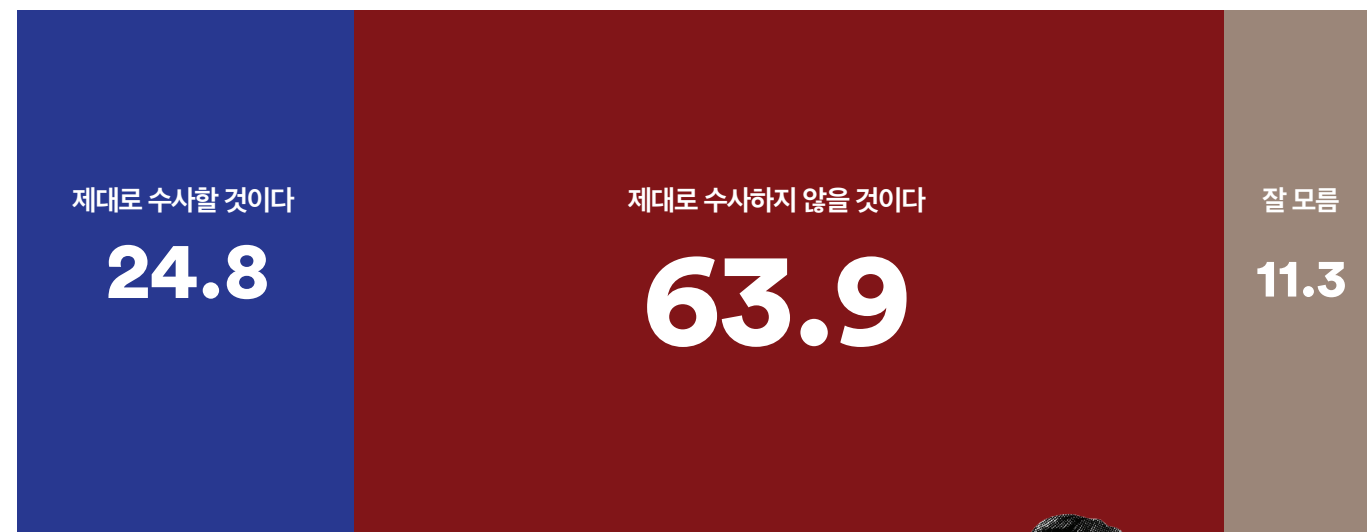
가담했다고 생각한다 가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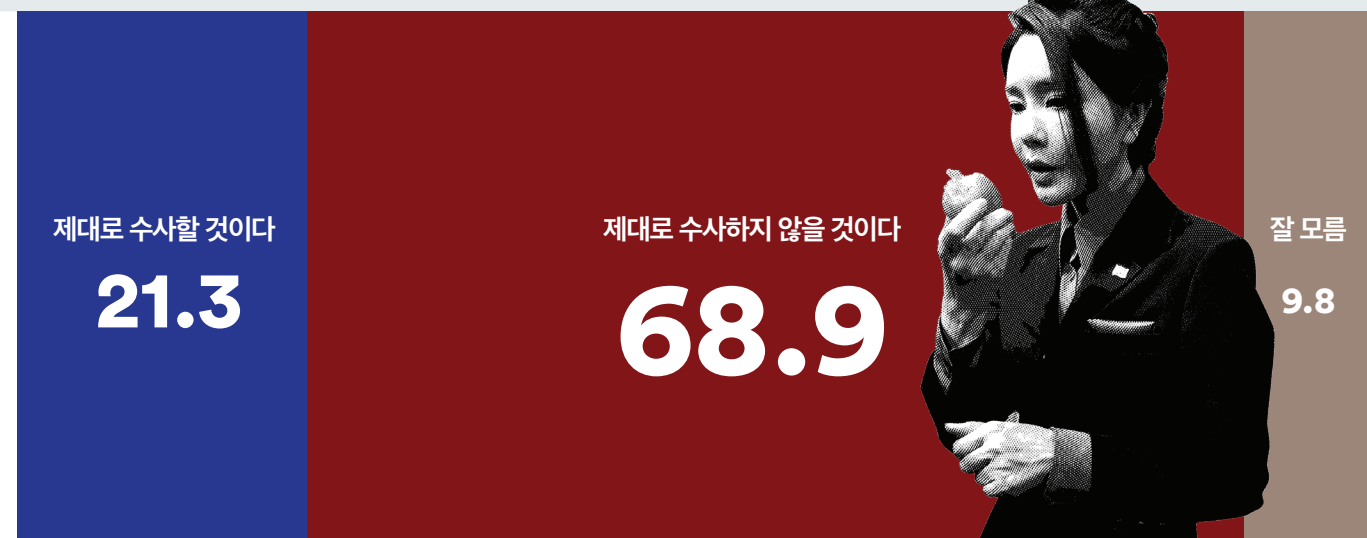
검찰의 대통령 배우자 수사 전망

Q. 향후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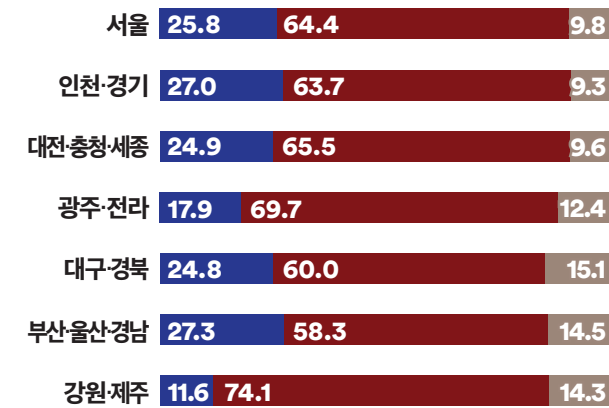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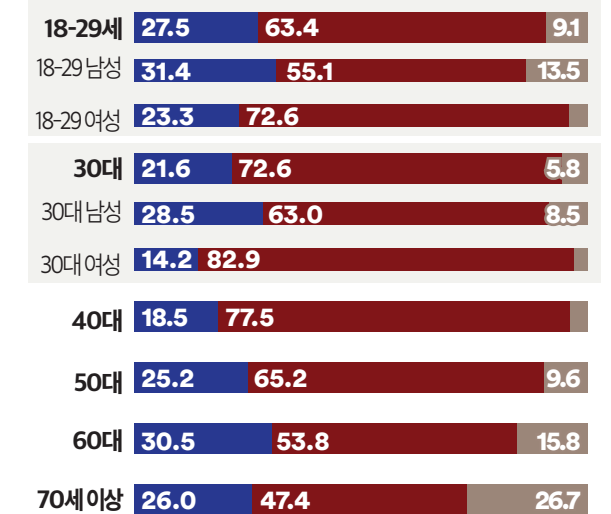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중 6명 이상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
 모든 성·연령·권역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 우세
 ARS | '제대로 수사할 것'이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51.6%, 보수층에서는 35.4%
 CATI | '제대로 수사할 것'이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44.5%, 보수층에서는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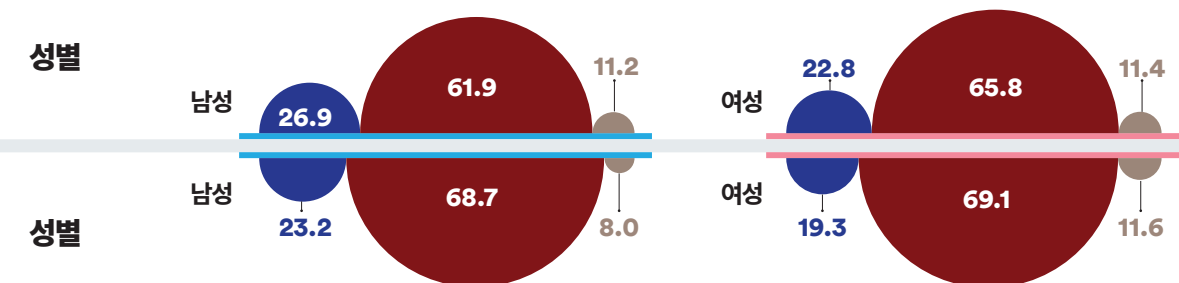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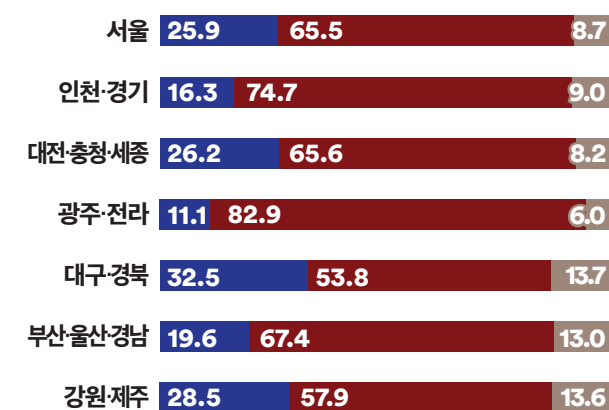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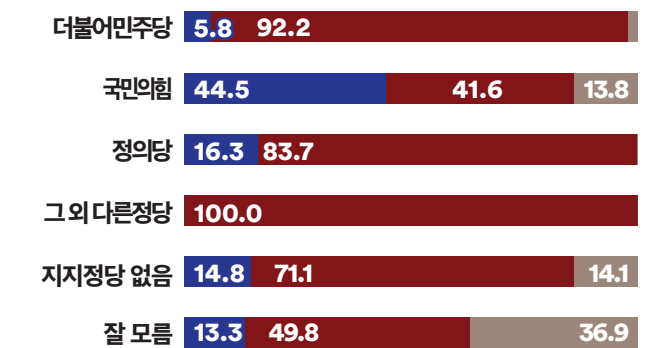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 제대로 할 것이다 ■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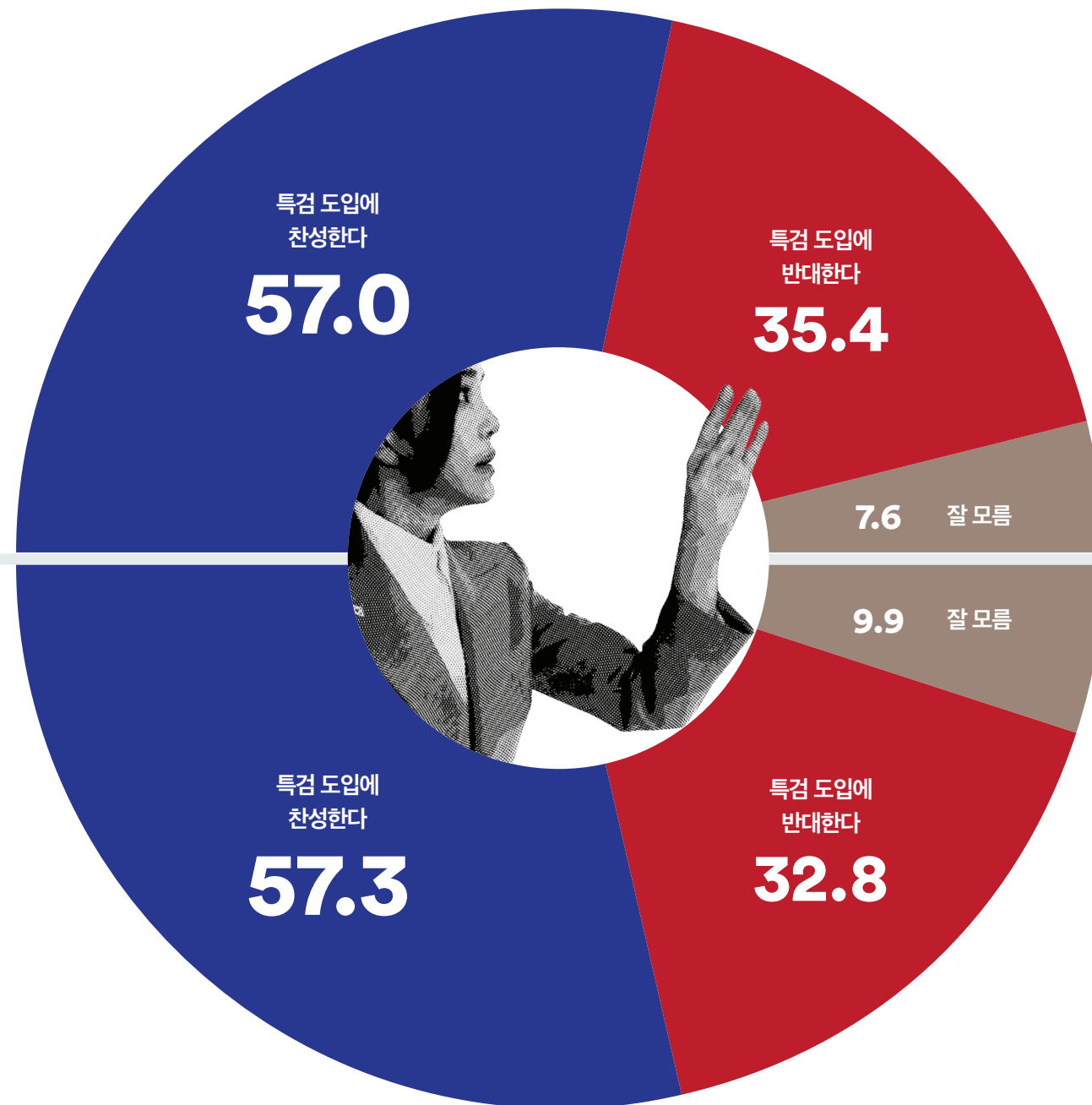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김건희 특검

Q.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해소를 위한 '김건희 특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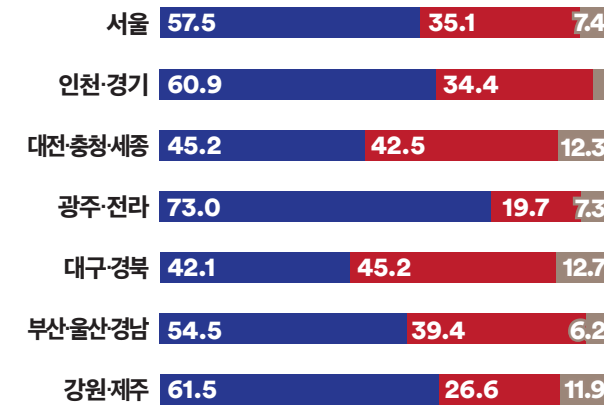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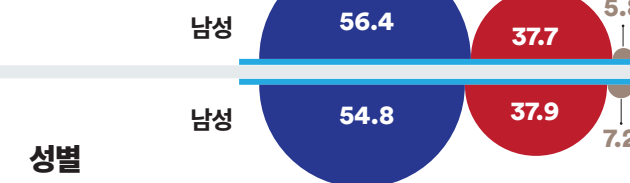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중 절반 이상이 '김건희 특검 도입에 찬성'이라고 응답
23차 ARS조사*(찬성 57.2% / 반대 32.3%), 8차 CATI조사*(찬성 59.8% / 반대 32.1%)

* 23차 ARS조사는 2023년 2월 5일~6일, 8차 CATI조사는 2023년 2월 3일~4일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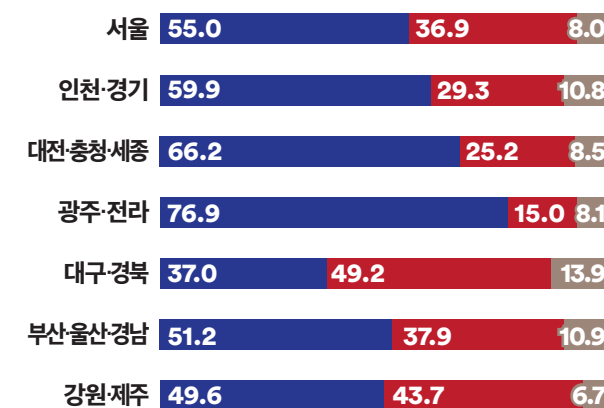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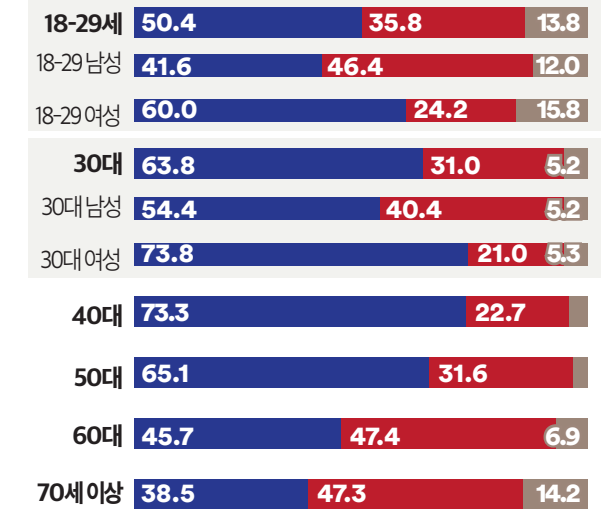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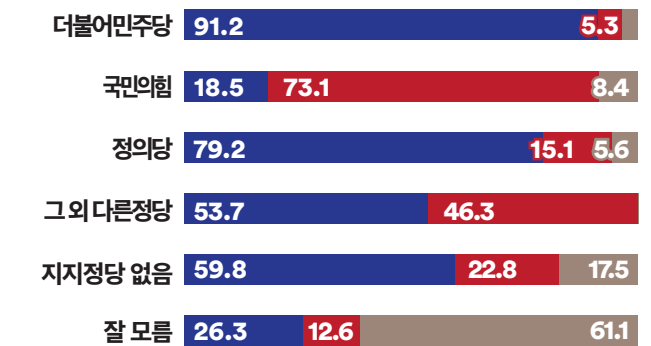
연령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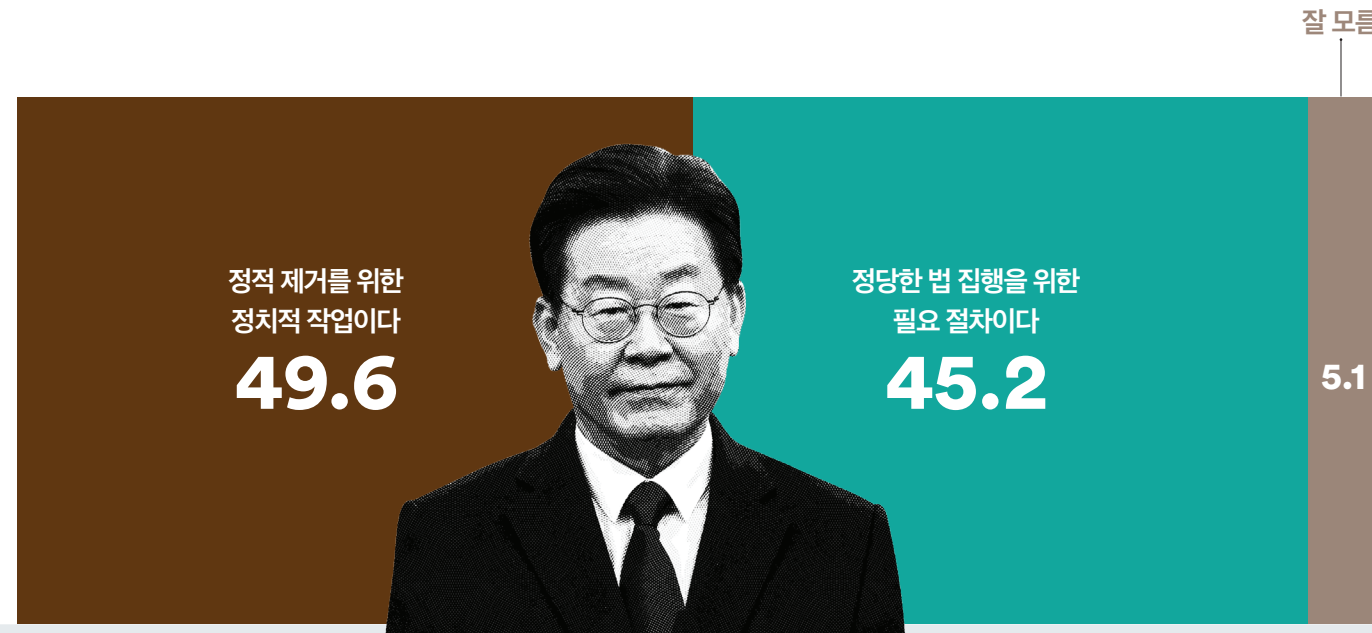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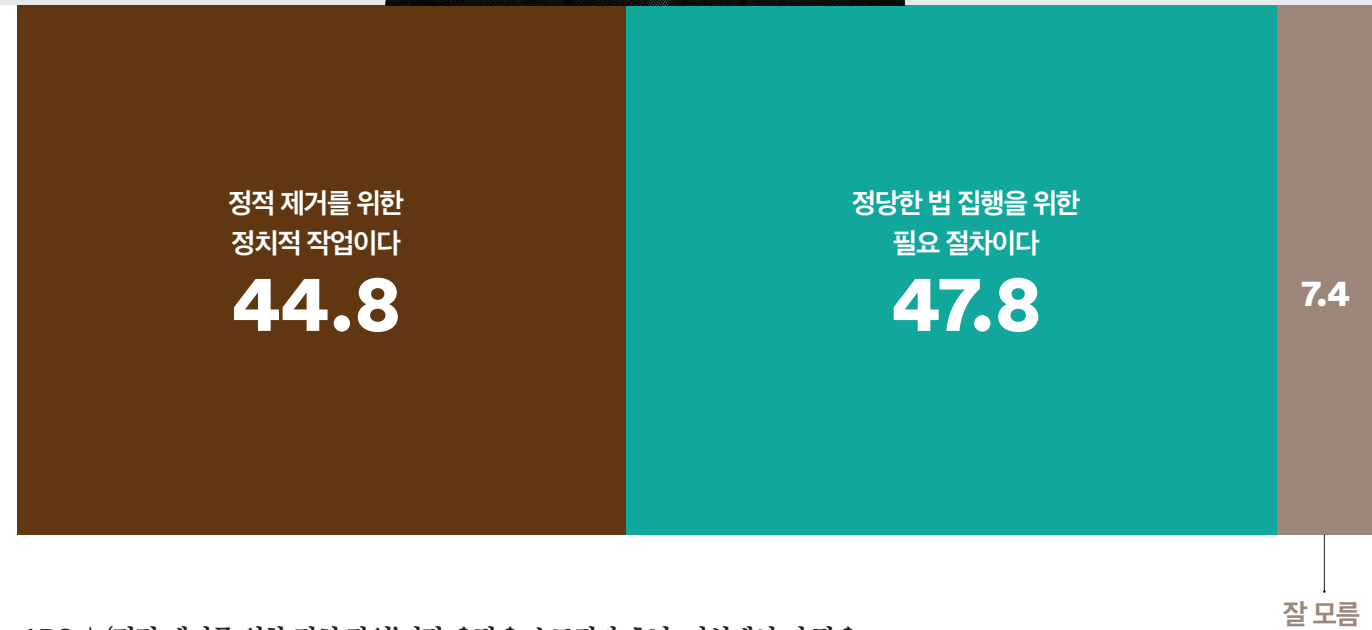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Q.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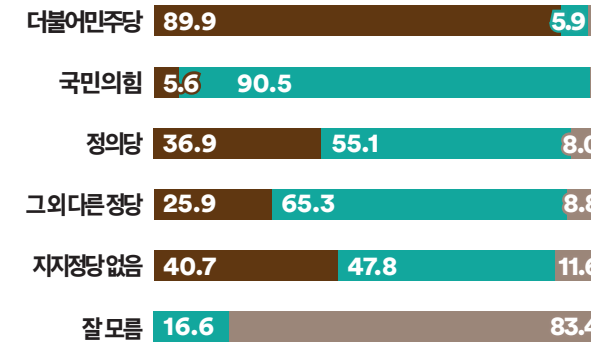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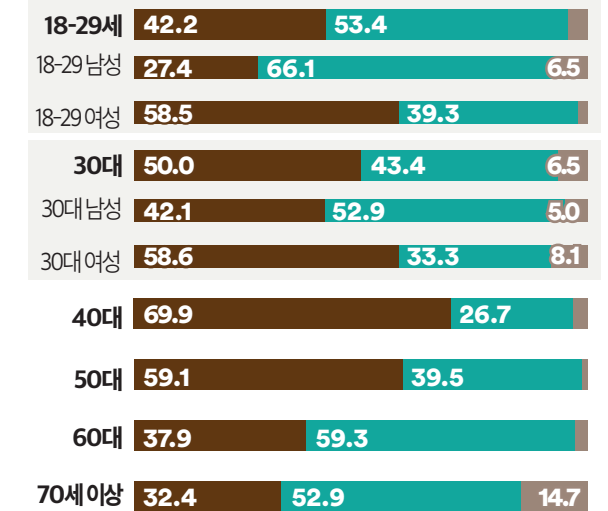


ARS |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작업'이란 응답은 수도권과 호남, 여성에서 더 많음
 무당층(정치 작업 40.7% / 필요 절차 47.8%), 중도층(정치 작업 51.1% / 필요 절차 45.7%)
 CATI | '정당한 법 집행 절차'란 응답은 서울, TK·PK, 강원·제주에서 더 많음
 무당층(정치 작업 36.2% / 필요 절차 49.3%), 중도층(정치 작업 50.8% / 필요 절차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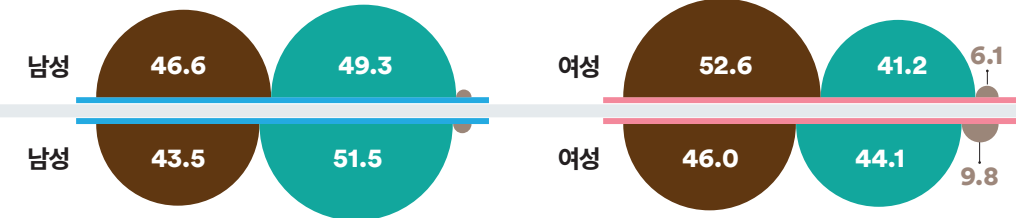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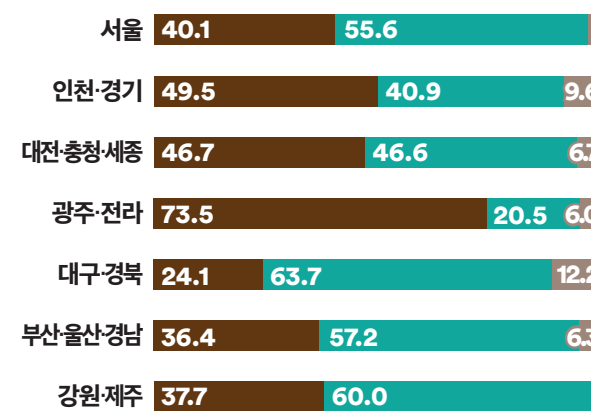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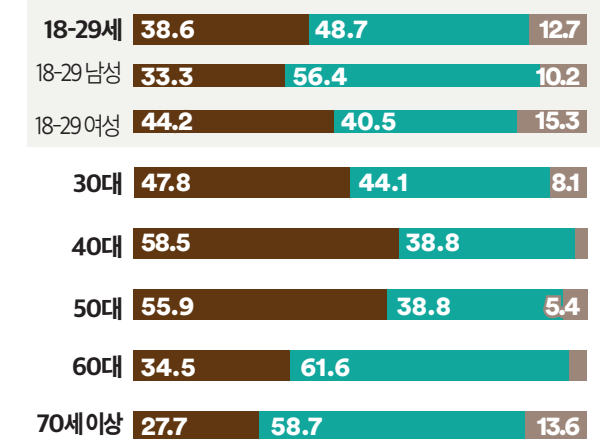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작업이다 필요 절차이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2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정치·사회
현안**

-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
- 윤미향 의원과 검찰의 수사 방식
- 윤미향 의원과 언론 보도의 공정성
- 서울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연

전화면접조사로 지난 주 이슈가 되었던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알려지게 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8개 혐의 중 7개 혐의는 무죄,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되어 벌금 1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보여졌던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

Q.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사인 화천대유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50억씩을 약속받았다는 일명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75.7

김만배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 박영수,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정영학 “50,50,50,50,50,50이면 100,200,300, 320”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회계사 정영학의 대화 녹취록 내용 발췌]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12.7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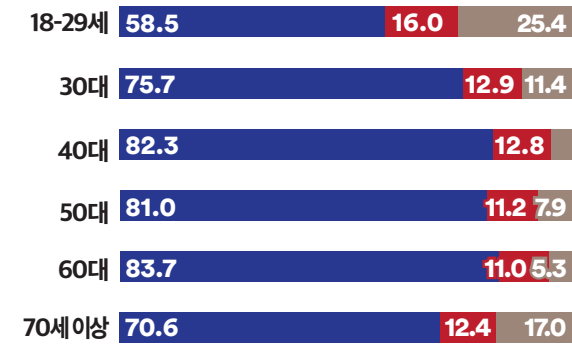
11.6

10명중 7명 이상은 ‘50억 클럽 특검 도입’에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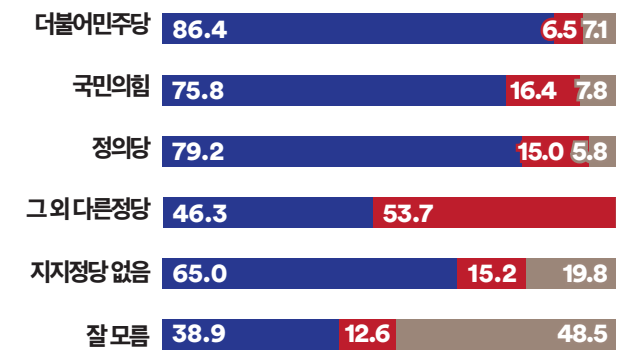
모든 성·권역·연령에서 ‘50억 클럽 특검 도입’ 찬성 우세

‘50억 클럽 특검 도입 찬성’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5.8%)과 보수층(73.3%)에서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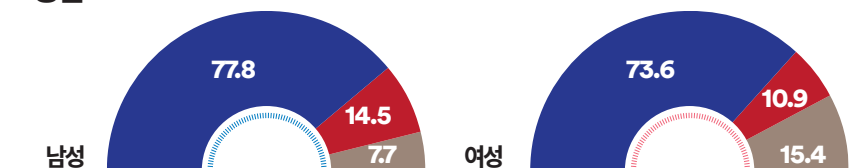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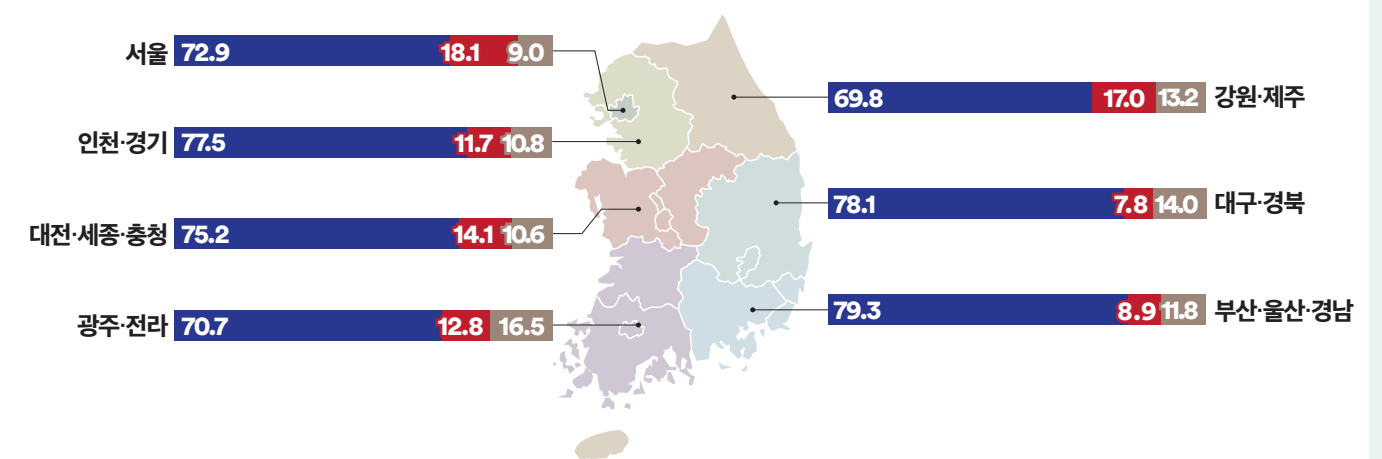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윤미향 의원과 검찰의 수사 방식

Q.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은 1개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횡령을 위해 계획적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기여하며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검찰 증거만으로는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 판결문 발췌]

“검찰이 무리하게 약 1억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약 1천 7백만 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다.”

[윤미향 의원의 판결 후 발언]

응답자 절반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음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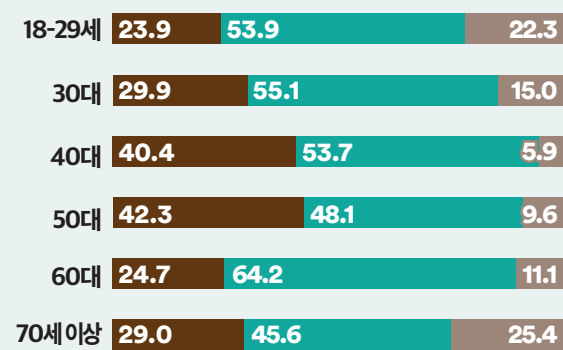
32.2

무리한 수사였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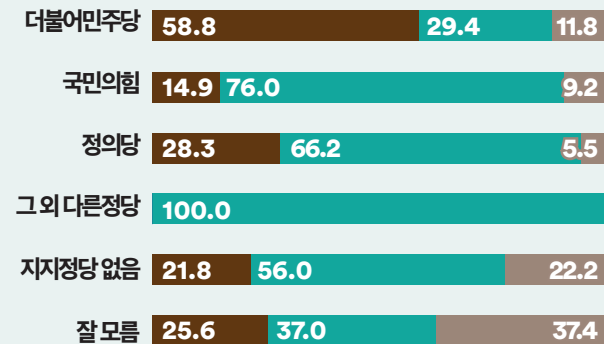
53.5

잘 모름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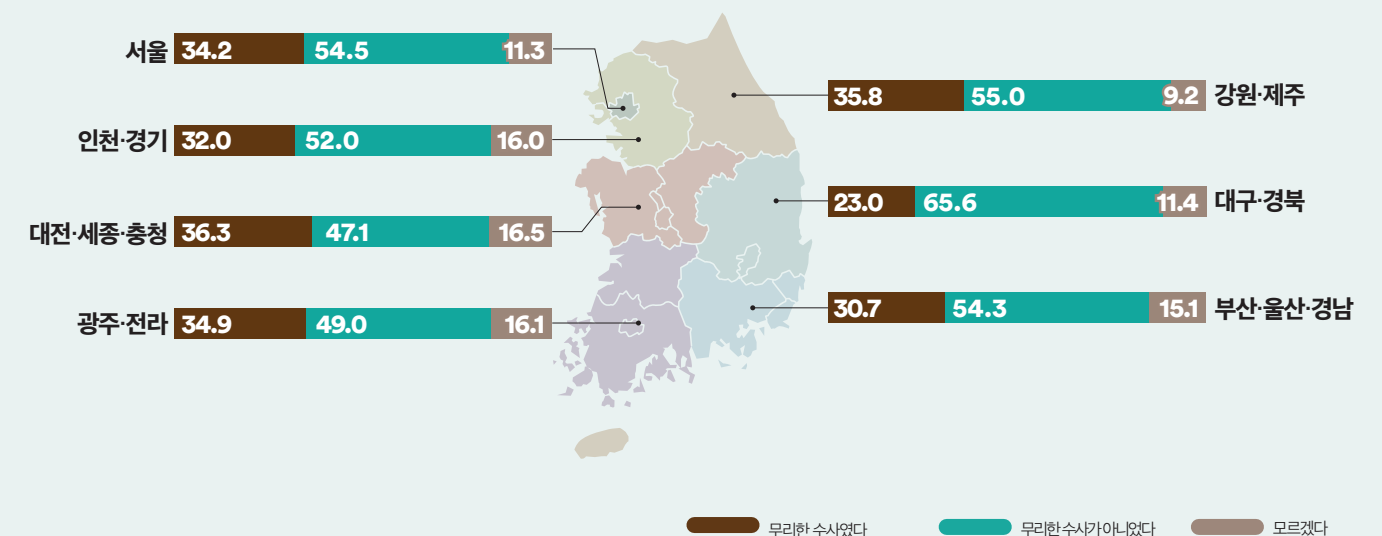
연령



정당지지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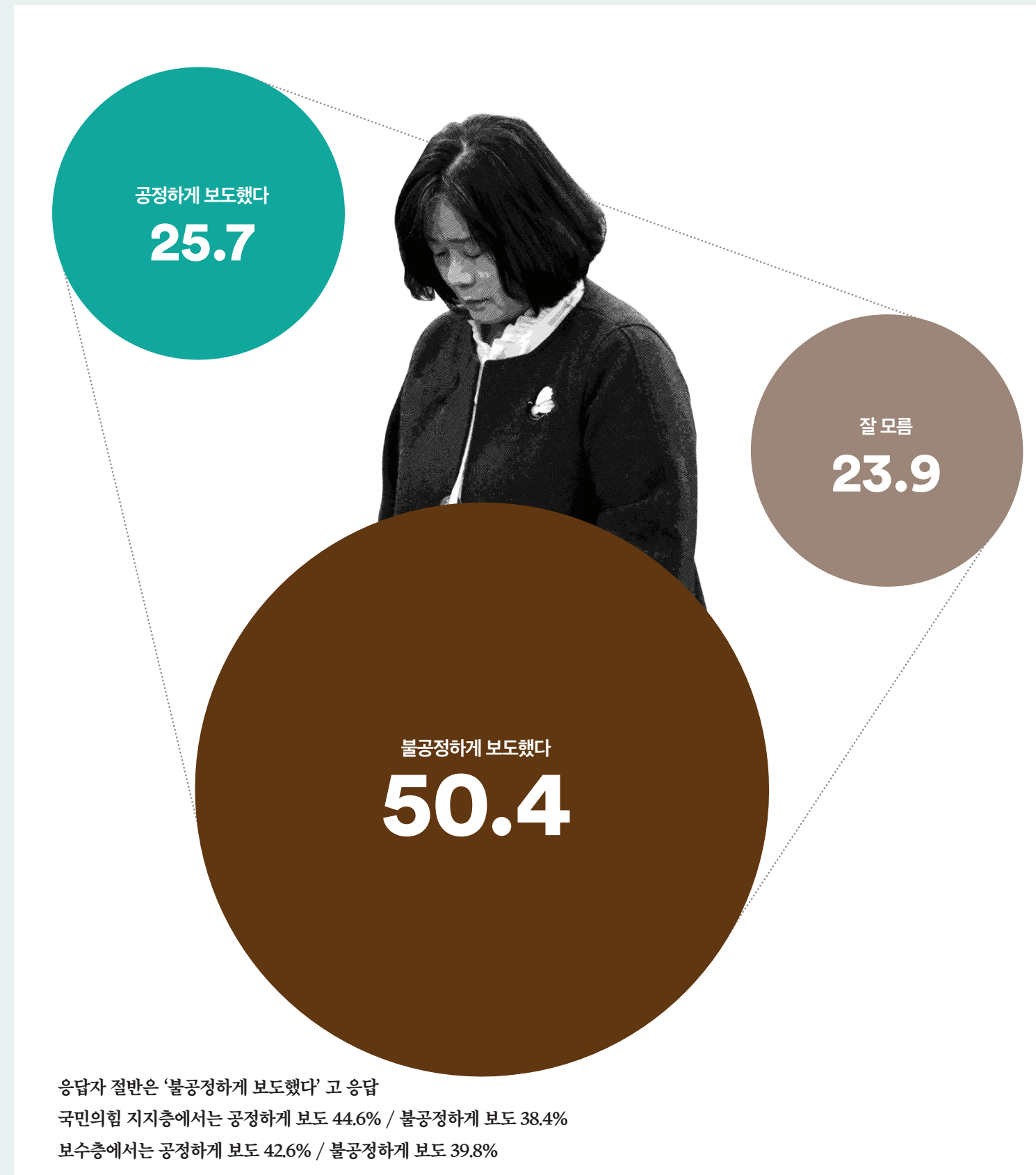


무리한 수사였다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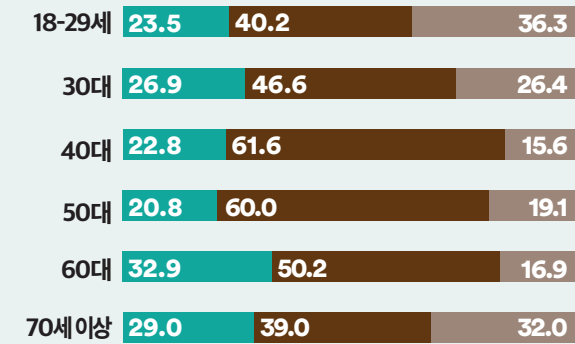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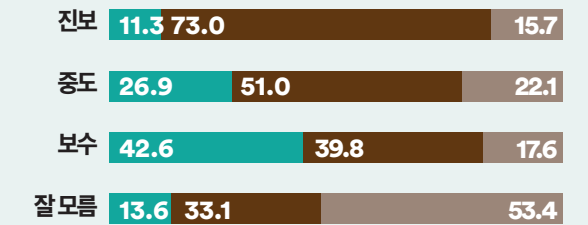
Q. 윤미향 의원 사건을 다룬 당시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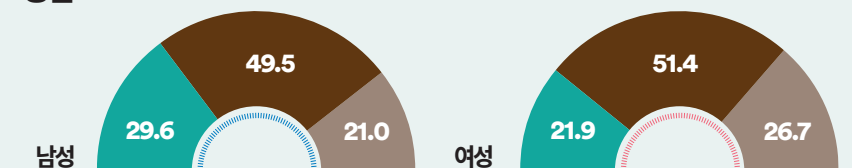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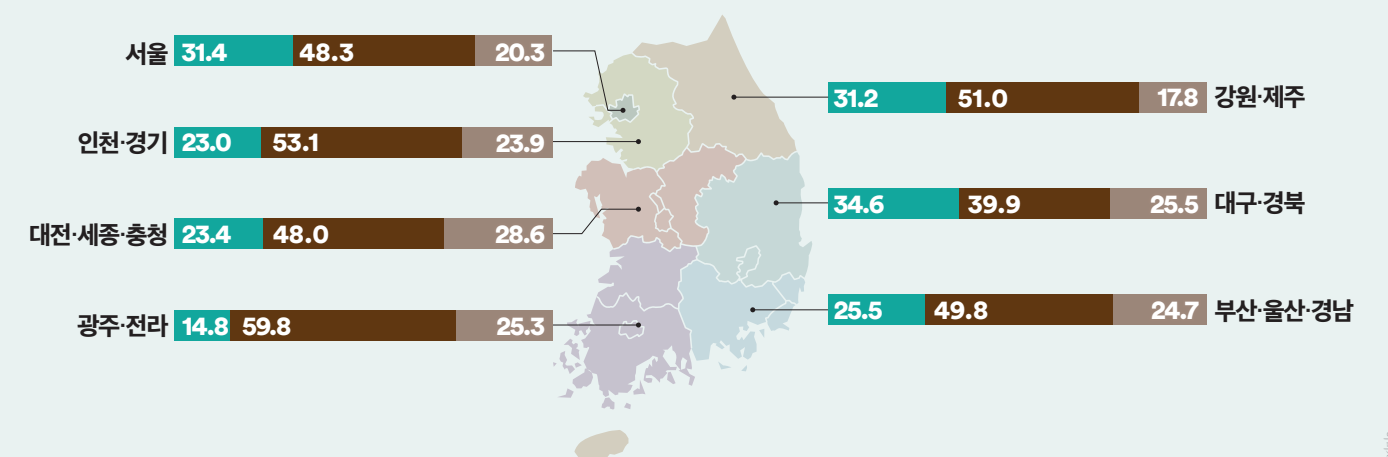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권역



공정하게 보도했다 불공정한 보도였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서울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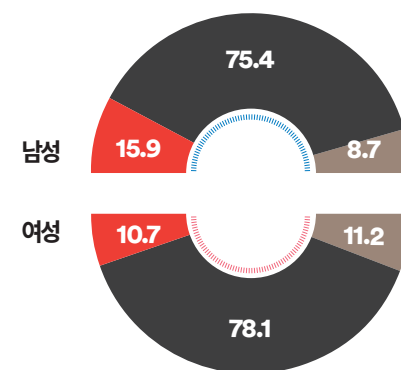
Q.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축하연이 지난 1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일왕 생일 축하연을 우리나라에서 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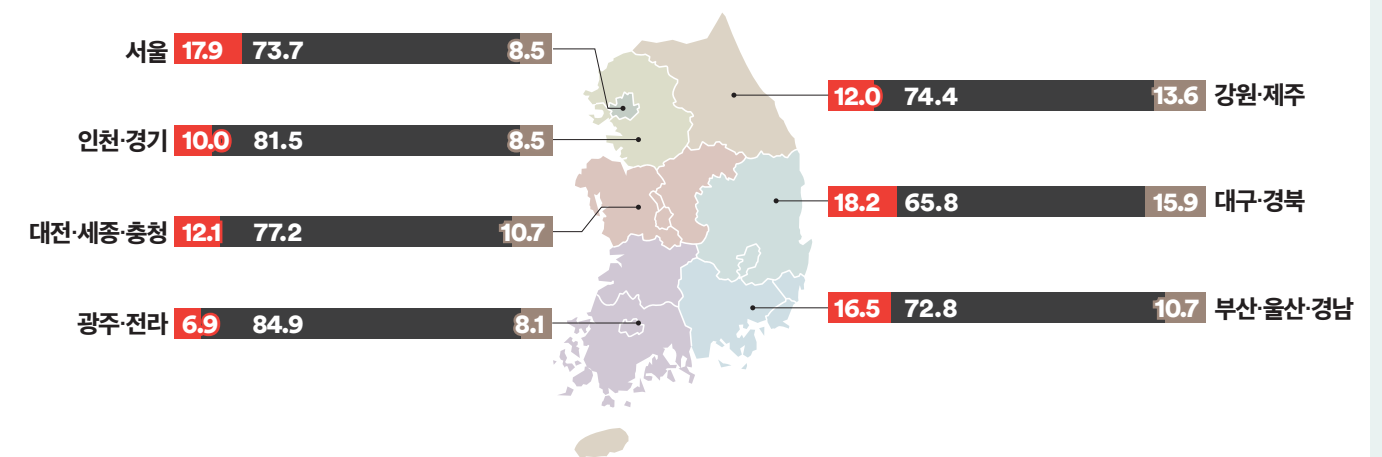
연령

18-29세	17.8	70.7	11.4
18-29 남성	26.1	62.1	11.7
18-29 여성	8.9	80.0	11.1
30대	13.9	80.3	5.8
40대	9.2	87.2	
50대	8.9	82.7	8.4
60대	16.5	72.9	10.6
70세 이상	14.8	62.6	22.7

성별



권역



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27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REPORT #202302_04

여론조사꽃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콘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